

대장암을 예방합시다(2)

혈변에 대해 알고 있는가?

육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의 출혈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그것은 잠혈 반응이다. 검사지의 윗쪽에 소량의 변을 묻혀 놓으면 혈액이 섞여지면서 색이 변하는 것으로, 잠혈 반응 양성이라 판정한다.

만일 잠혈반응이 양성이면 소화관 어딘가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. 물론 위궤양이나 위암일 경우도 있다. 대장암인지 아닌지는 정밀검사로 판정하게 된다.

대장암 검사는 간단하다.

대장의 정밀검사는 다음 2가지가 있다.

① 주장검사(注腸検査)

항문으로부터 바륨 조영제를 투입하고 필트겐 사진을 찍는다. 이상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방법.

② 내시경검사(內視鏡検査)

항문으로부터 내시경으로, 직장까지만 본다면 직장경을, 더 넓게 결장 전체를 보려면 대장 화이버 스코프를 대장 가운데에 넣는다.

이 검사의 경우에는 장 속에 변이 남아 있으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검사하기 하루 전부터 하제(下劑)를 복용하고 검사 당일에는 관장을 하여 장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.



혈액을 채취하여 C.E.A.(태아성 항원) 같은 물질을 측정하면, 대장암 환자에서는 70~80%에 이상(異常)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. 초기암의 경우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정도가 적어서 초기 암 발견에는 이용하지 않지만 진행된 암의 진단에는 참고로 한다.

그외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, 직장애 손가락을 넣어서 종양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손으로 더듬어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. 이것을 지진(指診)이라 한다. 직장암의 70%는 이렇게 해서 알아낸다. 이 방법은 의사가 아니라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.

목욕할 때에 오른손 인지(人指)에 비누를 묻혀 잘 미끄러지게 해서 가만히 항문 속으로 집어넣어, 무엇인가 변화는 다른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지를 조사한다. 어떤 방법으로도, 대장암의 진단은 비교적 용이하다 할 수 있다. 무엇보다도 우선 검사를 받고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. ㉓